

#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정희<sup>†</sup>, 김치용<sup>\*\*</sup>

## Effect of Career Barrier on Occupational Engagement of College Student Majoring in Multimedia Content

Lee, Jung Hee<sup>†</sup>, Kim Cheeyong<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ltimedia content on occupational engagement.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rom 446 students majoring in Multimedia content at D University in Pusan.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reliability analysis, t-test,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analysis with SPSS 24.0.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career barriers, external barrie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occupational engagement, although indecisive personality, lack of job information, lack of self clarific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occupational engagement.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d th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ltimedia Content, Career Barriers, Occupational Engagement.

### 1. 서 론

ICT 산업분야 사회·문화적 성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 성장률은 과히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성장률에 힘입은 ICT 산업분야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관련 전공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성장세와 고용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자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 결여와 희망으로 하는 업종 분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 대학은 인력개발처,

학생상담센터, 종합취업상황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인턴십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콘텐츠분야의 취업자는 사회와의 취업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는데 평균 1~2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은 지금까지의 학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된 최신 개념으로 진로

\* Corresponding Author : Kim, Cheeyong, Address: (47340) Umgwang-ro 176, Jin-gu, Busan, Korea, TEL : +82-51-890-2270, FAX : +82-51-890-2265, E-mail : kimchee@deu.ac.kr

Receipt date : Jan. 18, 2017, Revision date : Jan. 22, 2017  
Approval date : Jan. 23, 2017

<sup>†</sup> Dept. of Lifelong Education & Adolescent counseling, Dong-Eui University  
(E-mail : 55barami@deu.ac.kr)

<sup>\*\*</sup> Major of Visual Game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201600560001)

관여행동이 있는데, 진로 관여행동(Occupational Engagement)은 직업과 관련된 선택사항을 넓히고 일의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동을 의미한다[1].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과 같은 기존의 진로행동변인이 어느 정도 진로의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인 반면, 진로관여행동은 보다 확장되고 유연성을 갖춘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적응적 진로결정을 지향하는 행동이다[2]. 그러나, 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관여행동을 통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념화 한 것으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 있다.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내적 및 외적 조건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객관적 환경 자체보다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등의 지각된 장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지각된 진로장벽이 주도적 진로행동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진로장벽을 크게 지각할수록 주도적 진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6]. 이렇듯 진로장벽과 진로 관련 행동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상세히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모색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무엇이며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이들의 진로교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동아리활동 유무, 전공만족에 따라 진로장벽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별, 동아리활동 유무, 전공만족에 따라 진로관여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로장벽은 진로관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초적 이론이 되는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에 대해 검토한 다음, 3장에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 2. 이 론

### 2.1 진로 장벽

대학생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진로개척이라고 할 때, 어떤 대학생은 순조롭게 진로발달과정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로 나아가는가 하면, 때로는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좌절한다. 이렇게 개인의 적절한 진로발달에 대한 방해물을 개념화하여 진로장벽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개인의 특성, 외적환경요인, 외현화된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7]. 이들은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목표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인지-정서에 입각한 진로장벽 대처모델’에서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변인과 정서, 인지양식에 따라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처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개인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진로장벽의 지각은 취업에 대한 불안에 가장 근접해서 발생하는 인지적 개념으로서 취업 등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내적·외적 조건, 사건들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 진로장벽은 크게 내적요인, 외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9], 이후 연구들은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을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흥미부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경제적 어려움, 나이, 사회적 영향,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성차별, 자신감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10][11].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모든 발달단계에서 진로 탐색 및 수행과정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변인들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다[12].

2.2 진로 관여행동

다양성과 변화를 키워드로 하는 현대 사회는 진로 영역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진로 학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삼자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적응적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성과 직관, 그리고 진로관여행동을 제안하고, 행동적 구성요소인 ‘진로관여행동’ 변인을 강조하며 삼자모델을 수립하였다[13]. 이들은 진로관여행동을 크게 탐색(exploration)과 강화(enrichment)로 구분하였다. 탐색은 적응적 진로결정 과정과 관련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상태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진로탐색 행동에 해당된다. 반면 강화는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향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직업세계에 있어서 더욱 필요로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관여행동은 지속적으로 직업적 지식과 개인적 기술 모두를 높이는 포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14].

진로 관여행동은 직업과 관련된 선택사항을 넓히고 일의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든 행동이다[1]. 그러므로 진로관여행동은 어떤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과적 행동차원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관여행동은 기존의 행동적 차원의 진로변인인 진로준비행동[15]과 진로행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보다 과정적 변인으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진로관여행동은 대학생의 학업수행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3], 국내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콘텐츠관련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까지 부산지역 D 대학교의 ICT 공과대학의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 전공학과와 전학년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총 488부를 수거하여 그중 한 문항 이상의 척도에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복응답을 한 42부를 제외하고 총 44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이 222명(49.8%), 여학생이 224명(50.2%)이며, 학년은 1학년이 98명(22.0%), 2학년이 115명(25.8%), 3학년이 143명(32.1%), 4학년이 90명(20.2%)이다.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참여가 166명(37.2%), 참여하지 않음이 280(62.8%)이고, 전공 만족에 대한 질문에 “만족한다”에 346명(77.6%), “만족하지 않는다”에 100명(22.4%)이 답했다.

3.2 검사도구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 Characteristic     |                  | N   | %    |
|--------------------|------------------|-----|------|
| Gender             | Male             | 222 | 49.8 |
|                    | Female           | 224 | 50.2 |
| Grade              | Freshman         | 98  | 22.0 |
|                    | Sophomore        | 115 | 25.8 |
|                    | Junior           | 143 | 32.1 |
|                    | Senior           | 90  | 20.2 |
| Club Activity      | participation    | 166 | 37.2 |
|                    | nonparticipation | 280 | 62.8 |
| Major Satisfaction | Satisfaction     | 346 | 77.6 |
|                    | Dissatisfaction  | 100 | 22.4 |
| Total              |                  | 446 | 100  |

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2.1 진로장벽 척도

진로장벽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nwe, Yanico, Koschir가 개발한 진로결정 척도 (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기반으로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5요인 22문항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16]. 하위요인은 외적장애요인,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의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많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Cronbach  $\alpha$ 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외적장애요인 .79, 우유부단한 성격 .81, 직업정보 부족 .89, 자기명확성 부족 .90, 필요성인식 부족 .74이고, 전체 진로장벽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3.2.2 진로관여행동 척도

진로관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ox(200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관여척도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OES-S)를 정미나(20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 본 척도는 총 14개 문항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과 관련된 선택사항을 넓히고 일의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Cox(2008)의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85로 나타났으며 정미나(2011)의 연구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Ver. 24.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를 구하였다. 성별, 동아리활동 참여여부, 전공만족에 따라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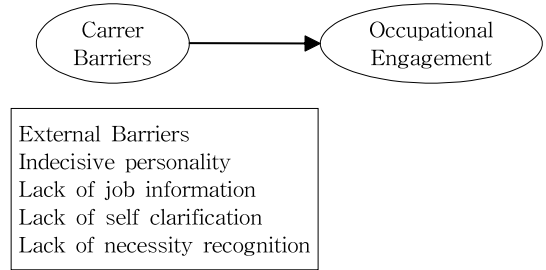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결과

4.1 성별, 동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성별, 동아리참여유무, 전공만족정도에 따라 진로장벽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진로장벽 전체 점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유부단한 성격( $t=-2.10, p<.05$ ), 직업정보 부족( $t=-2.03, p<.05$ ), 자기명확성 부족( $t=-2.44, p<.05$ )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의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아리 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진로장벽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모두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전공만족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 전체 점수는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t=-4.08, p<.01$ ). 또한 하위요인별로 보면 정보 부족( $t=-3.15, p<.01$ ), 자기명확성 부족( $t=-4.83, p<.01$ ), 필요성 인식 부족( $t=-3.07, p<.05$ )이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전공에 만족하는 하는 학생에 비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t값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점수로 유의수준  $p$  값이 .05보다 낮으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01보다 낮으면 99% 신뢰수준에서 결과가 유의함을 뜻한다.

4.2 성별, 동아리 활동 참여, 전공만족에 따른 진로관여 행동의 차이

대학생의 진로관여 행동이 성별, 동아리참여유무, 전공만족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Table 2. T-test for Occupational Engagement and Career Barriers total by Gender, Club Activity, Major Satisfaction

| Factor                        |    | Gender       |                |        | Club Activity         |                           |       | Major Satisfaction   |                          |         |
|-------------------------------|----|--------------|----------------|--------|-----------------------|---------------------------|-------|----------------------|--------------------------|---------|
|                               |    | Male (n=222) | Female (n=224) | t      | participation (n=166) | non participation (n=280) | t     | Satisfaction (n=346) | Dis-satisfaction (n=100) | t       |
| Career Barriers total         | M  | 2.50         | 2.61           | -1.79  | 2.51                  | 2.58                      | -.96  | 2.48                 | 2.79                     | -4.08** |
|                               | SD | .65          | .70            |        | .67                   | .68                       |       | .67                  | .64                      |         |
| External Barriers             | M  | 2.09         | 1.94           | 1.78   | 2.00                  | 2.02                      | -.29  | 1.99                 | 2.11                     | -1.26   |
|                               | SD | .86          | .84            |        | .87                   | .84                       |       | .84                  | .86                      |         |
| Indecisive personality        | M  | 2.84         | 3.03           | -2.10* | 2.94                  | 2.94                      | -.01  | 2.89                 | 3.10                     | -1.96   |
|                               | SD | .86          | .99            |        | .87                   | .97                       |       | .94                  | .87                      |         |
| Lack of job information       | M  | 2.87         | 3.05           | -2.03* | 2.88                  | 3.00                      | -1.32 | 2.89                 | .92                      | -3.15** |
|                               | SD | .86          | .99            |        | .93                   | .93                       |       | 3.22                 | .90                      |         |
| Lack of self clarification    | M  | 2.56         | 2.81           | -2.44* | 2.64                  | 2.71                      | -.67  | 2.56                 | 1.05                     | -4.83** |
|                               | SD | 1.04         | 1.15           |        | 1.12                  | 1.09                      |       | 3.15                 | 1.15                     |         |
| 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 M  | 2.12         | 2.22           | -1.26  | 2.11                  | 2.20                      | -1.20 | 2.10                 | 2.40                     | -3.07** |
|                               | SD | .82          | .86            |        | .84                   | .87                       |       | .81                  | .98                      |         |

\*p<.05, \*\*p<.01.

Table 3. T-test for Occupational Engagement and Career Barriers total by gender, Club Activity, Major Satisfaction

| Factor                  |    | Gender       |                |      | Club Activity         |                           |        | Major Satisfaction   |                          |       |
|-------------------------|----|--------------|----------------|------|-----------------------|---------------------------|--------|----------------------|--------------------------|-------|
|                         |    | Male (n=222) | Female (n=224) | t    | participation (n=166) | non participation (n=280) | t      | Satisfaction (n=346) | Dis-satisfaction (n=100) | t     |
| Occupational Engagement | M  | 3.00         | 2.91           | 1.30 | 3.14                  | 2.84                      | 4.66** | 2.99                 | 2.81                     | 2.34* |
|                         | SD | .67          | .69            |      | .63                   | .68                       |        | .67                  | .68                      |       |

\*p<.05, \*\*p<.01.

에 따라서는 두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 관여행동의 정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동아리활동 참여여부에 따라서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진로관여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4.66, p<.01). 즉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진로관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 여부에 따른 진로관여행동도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의 진로 관여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t=2.34, p<.05). 이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진로관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3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 장벽과 진로관여행동 전체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상관이 있었다(r=-.352, p<.01).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 장애는 상관이 없었으며, 그 외 우유부단한 성격(r=-.336, p<.01), 정보부족(r=-.327, p<.01), 자기명확성 부족(r=-.394, p<.01), 필요성 인식부족(r=-.189, p<.01)은 진로관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로장벽의 하위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관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추정된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Table 4.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 Factor                           | 1       | 2      | 3      | 4      | 5      | 6      | 7 |
|----------------------------------|---------|--------|--------|--------|--------|--------|---|
| 1. Occupational Engagement       | 1       |        |        |        |        |        |   |
| 2. Career Barries total          | -.352** | 1      |        |        |        |        |   |
| 3. External Barriers             | .023    | .592** | 1      |        |        |        |   |
| 4. Indecisive personality        | -.336** | .748** | .284** | 1      |        |        |   |
| 5. Lack of job information       | -.327** | .776** | .307** | .522** | 1      |        |   |
| 6. Lack of self clarification    | -.394** | .781** | .230** | .519** | .540** | 1      |   |
| 7. 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 -.189** | .712** | .414** | .362** | .423** | .431** | 1 |

\*\*p<.01.

Table 5. Influence of 5 career barriers on Occupational Engagement by regression analysis

| Independent variable          | Non-standardized coefficient |         | Standardized coefficient | t      | p-value |
|-------------------------------|------------------------------|---------|--------------------------|--------|---------|
|                               | B                            | S.E     | β                        |        |         |
| Constant                      | 3.811                        | .115    |                          | 33.127 | .000    |
| External Barriers             | .150                         | .038    | .188                     | 3.978  | .000    |
| Indecisive personality        | -.122                        | .039    | -.168                    | -3.164 | .002    |
| Lack of job information       | -.105                        | .040    | -.143                    | -2.621 | .009    |
| Lack of self clarification    | -.159                        | .034    | -.258                    | -4.736 | .000    |
| 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 -.027                        | .040    | -.034                    | -.670  | .503    |
| Model Summary                 | R=.465                       | R2=.216 | F=24.223                 | P<.000 |         |

며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21.6%로 나타났다(F=24.223, p<.000).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장애(β=.188, p=.000)는 진로관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한 성격(β=-.168, p=.000), 정보부족(β=-.143, p=.000), 자기명확성부족(β=-.258, p=.000)이 진로관여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로장벽 중 외적 장애가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관여행동을 많이 하고, 정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명확성부족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을 작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결 론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진로 관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동아리참여여부,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장벽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진로장벽 진

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요인별로 보면 여학생이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의 진로장벽을 남학생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우유부단한 성격과 자기명확성 부족과 같은 내적 장벽요인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업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라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이 실제 외적장벽이라기 보다는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내면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동아리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신의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전공만족도는 진로장벽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났다.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진로장벽의 결과들을 볼 때,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우유부단함을 개선하고 자기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수업전략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이 성별, 동아리참여여부, 전공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진로관여행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으나,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진로관여행동이 높았다. 진로관여행동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4]를 볼 때, 진로관여행동을 높이는 것은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므로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경험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진로장벽이 진로관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관여행동을 함에 있어 진로장벽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외적 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관여행동을 많이 하고, 정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명확성부족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을 작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과 진로 관련 행동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선행연구들 [4,5,6]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기한다. 즉 진로장애 중 부모님이나 주변사람의 반대, 학벌이나 연령의 제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장애 등 외적 장애를 많이 지각하는 대학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로관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성격, 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과 같은 내적 장애를 많이 지각하는 대학생은 진로관여행동을 하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자신의 진로장벽 중 외적 장애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진로관여행동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진로관여행동을 높

여 적극적인 진로개척자가 되는 것의 기초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관련 지원책이 자기소개서쓰기, 면접연습과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자신의 내면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 전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학교별, 학과별 학생비율을 반영하여 대표성있게 표집할 것을 제안하고, 다른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들과 비교한다면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지도도를 위해 본 연구를 확장하여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을 매개하는 다른 심리적 변인들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1] D.W. Cox,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Doctor's Thesis of University Kansas, 2008.
- [2] M.N. Ju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of Korea University, 2011.
- [3] J.L. Swanson and M.B. Woitke,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5, No. 4, pp. 443-462, 1997.
- [4] M.J. You, *Impact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5] A. Hirschi, B. Lee, E.J. Porfeli, and F.W. Vondracek, "Proactive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Career Behaviors: Investigating Direct,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3, No. 1, pp. 31-40, 2013.

[6] H.R. Lee, S.M. Kim, M.S. Cheun, and S.K. Choi,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4, pp. 59-80, 2008.

[7] R.W. Lent, S.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5, No. 1, pp. 79-12, 1994.

[8] M. London,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4, No. 1, pp. 25-38, 1997.

[9] J.O. Crites, *Vocational Psychology*, McGraw-Hill, New York, 1969.

[10] E.Y. So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Docto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1.

[11] E.Y. Kim,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1, pp. 219-240, 2002.

[12] J.Y.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Occupational Engagement : Testing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Career Control and Meaning-Making*, Master's Thesis of Yonsei University, 2015.

[13] T.S. Krieshok, M.D. Black, and R.A. McKay,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5, pp. 275-290, 2009.

[14] N.R.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the Relation Between in*

*Ternal Locus of Control and Career Adaptability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of Yonsei University, 2013.

[15] B.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16] J.K. Tak, K.H. Lee,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Scale: An Exploratory Study," *Digital Business Studies*, Vol. 1, No. 1, pp. 167-180. 2001



이 정 희

1996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2005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2006년 3월~현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

2015년 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Visiting Scholar  
 관심 분야: 대학생의 진로적응, Psychodrama, Group Counseling, Adolescent Counseling



김 치 용

1991년 인제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2000년 인제대학교 대학원 전산물리학과 졸업 이학박사  
 2000년~2006년 부산정보대학 정보통신계열 및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학부 조교수

2007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Harris Manchester College, Visiting Fellow  
 2012년~2013년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디지털클로딩센터 객원교수  
 2006년 3월~현재 동의대학교 ICT공과대학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3D Animation, Multimedia Design, Chaos & Fractal Design, VR/AR Contents Design, 게임캐릭터디자인, 가상퍼팅시스템.